

어머니의 마음의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Mind-mindednes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김경선(Kyoung-Sun Kim)¹⁾

임지영(Ji-Young Lim)²⁾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mind-mindednes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bjects consisted of 107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ternal mind-mindedness had an indirect effect on parenting behaviors through parenting stress. Second, maternal mind-mindedness had a direct impact on emotional intelligence.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maternal mind-mindedness plays a crucial role in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Keywords : 어머니의 마음의식(maternal mind-mindedness),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본 논문은 2013년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Young Lim, 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 +82-53-950-6211, E-mail : limj@knu.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인간은 자신의 여러 경험을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심적 표상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Paivio, 1986). 즉,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표상을 지니느냐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발달 심리학자 Meins(1997)는 유아 및 부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어머니를 비롯한 주양육자의 ‘마음의식(Mind-mindedness)’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마음의식이란 유아의 연령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마음(mind)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는 경향성(Jung, Park, Lee, & Kim, 2010)을 의미하며, 이는 유아의 마음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표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어린 유아들조차도 의도나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데,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단순히 의도적 존재로서의 유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유아의 실제 세계에 대한 표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여기는 것이다(Meins, 1997).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어머니와 유아 간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 즉 안정애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Meins, 1997; Meins & Fernyhough, 1999). 하지만 안정애착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변수들, 즉 민감성(sensitivity)이나 감정코칭(emotion coaching) 등은 마음의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즉, 민감성이 유아

의 행동 및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해석, 그리고 그에 적절하며 즉시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개념이라면(Ainsworth, Bell, & Stayton, 1971),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집중하려는 어머니의 의지 혹은 성향을 강조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Meins, Fernyhough, Fradley, & Tuckey, 2001). 또한 감정코칭은 유아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공감하고 경청하며, 유아가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효과적인 대화법으로 유아의 정서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Gottman, Declairs, & Goleman, 1997),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정서뿐만 아니라 의도, 바람, 인지 등 전반적인 마음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므로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보다 폭넓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출생 전부터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고유한 성향이며(Arnett & Meins, 2008), 이러한 개인의 성향은 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ok & McMahon, 2006; McMahon & Meins, 2012). 따라서 어머니의 마음의식에 대한 이해는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의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Lee(2011)의 연구에서 산후우울증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심리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며, 이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의식과 긍정적인 양육환경의 관련성을 보여준 것이 유일

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증 정도에 따른 어머니들의 상호작용의 차이를 보았을 뿐, 기존의 국외 연구들이 보여준 다른 변인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어머니 자신의 양육환경 및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마음의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마음의식에 관한 국외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Meins et al., 2001, 2002, 2003). 그 이유는 마음의식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은 아주 어린 영아들도 어떠한 의도나 바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어린 자녀를 대할 때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근거한 대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Meins, 1997; Meins & Fernyhough, 1999). 또한 이러한 어머니들은 어린 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하기 보다는 유아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데, 가령 유아의 놀이상황이나 도전적인 과제에 참여 시, 마음의식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은 유아의 시도를 격려하고, 현재의 발달 상태에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Meins, 1997). 이러한 과정은 유아로 하여금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고,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의식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의 특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들은 유아에 대한 심리적 표상에 근거하여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나가며, 그 과정에서 유아의 마음과 정서를 언급하고, 유아에 대한 적절한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유아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경험의 기회를 줌(Meins, 1997)으

로써 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 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정서적·인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해 정서를 조절하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Salovey, Mayer, & Caruso, 2000). 정서지능은 개인이 좌절, 스트레스 등의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결정하게 하고(Salovey, Stroud, Woolery, & Epel, 1999), 대인관계에서 자신 혹은 타인의 마음 및 정서를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Goleman, 1995)는 점에서 정서지능 발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긴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유아가 겪는 사회·정서적 어려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Walker, Wheatcroft, & Camic, 2012),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유아의 심리상태에 대해 언급하고(Meins & Fernyhough, 1999) 유아의 의도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행동이 유아로 하여금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마음과 정서를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Ereky-Stevens, 2008)는 것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Dunn, Brown과 Beardsall (1991)는 생애 초기의 가족 간 대화의 주제(즐거움, 애정, 공감과 같은 긍정적 주제 혹은 두려움, 분노, 괴로움과 같은 부정적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한 정서에 대한 가족 간 대화는 이후 유아의 타인정서이해 능력과 매우 높은 상

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가족 간 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의식(Meins, 1997)임을 고려한다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마음의식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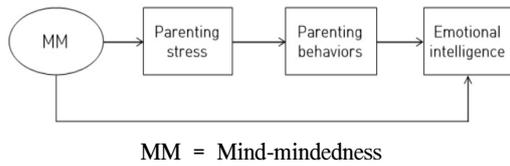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양육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Lok & McMahon, 2006; McMahon & Meins, 2012), 특히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Demers, Bernier, Tarabulsky, & Provost, 2010a). 두 변인 중 어느 변인이 선행하는 요인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양육스트레스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보다는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의해 야기되며, 이러한 인식은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Crnic & Low, 2002)는 점에서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심리, 정서 상태에 대해 집중하는 어머니들은 유아의 행동 및 표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보다 적을 것이다. 실제로 Walker, Wheatcroft와 Camic(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해 임상집단의 어머니들이 마음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임상집단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국외 연구들은 유아의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유아의 행동 및 표현을 해석하려는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느낌을 밝혀왔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bidin, 1990a). 또한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민감성이나 안정애착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사실은 곧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

측하게 한다. 즉, 유아의 심리상태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표상은 유아를 대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nagy & Target, 1997).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개인의 고유한 성향이며,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Demers et al., 2010a)는 점에서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가령, 어머니가 가지는 자녀의 마음상태에 대한 내적 표상이 긍정적인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느끼고, 이러한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한편, 정서지능 발달은 무엇보다도 생애 초기의 환경적 요인,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unn & Brown, 1994; Kernberg, 1976). 많은 선행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온정성(Park, Choi, & Park, 2000; Sillick & Schutte, 2006), 부모의 감독(Liau, Liau, Teoh, & Liau, 2003), 처벌적 훈육방식(Moris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Pears & Moses, 2003) 등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MM = Mind-mindedness

<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확인하고자 어머니의 마음의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발달의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부모교육에 있어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기 아동 발달에 있어 마음의식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Figure 1)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1-1.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1-2.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지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소재의 6개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5~6세 유아 107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본 연구대상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은 5세 45명(42.1%), 6세 62명(57.9%)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아가 49명(45.8%), 여아가 58명(54.2%)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5세로 30대(84명, 85%)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66명, 61.7%), 전문대학(24명, 22.4%), 대학원 이상(12명, 11.2%)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60명(56.1%)의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601만 원 이상(31가구, 29.0%)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501~600만 원(21가구, 19.6%), 401~500만 원(19가구, 1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 및 유아는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상위층에 편중된 표집이 이루어진 것은 연구절차상 인터뷰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연구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를 한 어머니들에 한해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마음의식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를 마음(mind)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는 것으로 어머니의 마음의식 수준은 어머니가 유아를 설명하는데 있어 그들의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기술하는 빈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eins, Fernyhough,

Russell와 Clark-Carter(1998)의 인터뷰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인터뷰는 “당신의 자녀인 ○○(유아명)(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라는 단일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단답형인 경우에는 2개의 추가질문(“○○가 가장 잘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나요?”)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자녀에 대해 보다 설명해줄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본 질문을 하였다. 추가질문에 대한 기술어는 제외하고 본 질문에 대한 기술어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Meins와 Fernyhough(2010)의 코딩메뉴얼에 따라 네 개의 상호배타적인 범주(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일반적)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또한 Demers 등(2010a, 2010b)의 주장에 따라 마음의식의 하위속성(valence)을 고려하기 위해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기술한 심리적 표상이 긍정적인지(아이가 배려심 깊은, 생각이 의젓한, 영리한, 다정다감한 등), 중립적인지(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 ○○이/가 되고 싶어 하는 등), 부정적인지(아이가 이기적인, 겁이 많은, 시기하는 등)에 따라 재분류 하였다. Demers 등(2010b)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표상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속성의 비율로 마음의식 점수를 산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녀에 대한 기술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총 발화 수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기 위해 총 발화 수 중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속성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기술하는 총 발화 수 중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심리적 표상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로 각각의 마음의식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평정자간 신뢰도는 긍정적 마음의식 .97, 중립적 마음의식 .78, 부정적 마음의식은 .86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b)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이를 2인의 아동학 박사학위자가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후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어머니용 평정척도로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고통(부모 영역),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부모-자녀 관계 영역),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유아 영역)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문항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43~119점이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89였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Yu(1998)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행동인 애정(7문항), 거부/통제(7문항), 일관성(7문항), 독립성 지향(6문항)만을 사용하였다(Alegre, 2011).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27~13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부/통제에 해당하는 문항과 일관성의 일부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문항을 제외한 총 26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산출된 신뢰도는 .89였다.

4) 정서지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1998)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의 총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는 50~250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9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 연구절차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인터뷰 및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인터뷰 진행 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5월, 유아 10명(5, 6세 남녀 각각 5명씩)의 어머니와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완성된 설문지와 인터뷰 매뉴얼을 이용하여 2012년 6월~8월 5, 6세 유아 107명의 어머니와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 16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인터뷰는 본 연구자와 3회 이상의 모의 인터뷰 훈련을 거친 연구보조자 3인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의 빈 교실 혹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 과정은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분석 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터뷰에 응한 어머니와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배부되었으며, 교사 1인당 2~10명 유아의 정서지능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배부

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한 간접 회수 방식으로 수거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 .05 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Hong, 2000).

Ⅲ. 결과분석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총 기술어 수는 5~28개였으며, 그 중 긍정적 마음의식 수는 0~13개, 중립적 마음의식 수는 0~8개, 부정적 마음의식 수는 0~7개였다. 총 기술어에 대한 각각의 마음의식의 비율로 계산한 점수의 평균은 각각 긍정적 마음의식 .18($SD = .14$), 중립적 마음의식 .11($SD = .12$), 부정적 마음의식 .14($SD = .12$)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 = 107)

| Variables | 1 | 2 | 3 | 4 | 5 | 6 |
|-----------------------------|---------|------|--------|---------|-----|---|
| 1. Positive mind-mindedness | - | | | | | |
| 2. Neutral mind-mindedness | -.08 | - | | | | |
| 3. Negative mind-mindedness | -.37*** | -.18 | - | | | |
| 4. Parenting stress | -.22* | -.16 | .44*** | - | | |
| 5. Parenting behaviors | .24** | .06 | -.30** | -.55*** | - | |
| 6. Emotional intelligence | .18 | .14 | -.23** | -.23* | .18 | - |

* $p < .05$. ** $p < .01$. *** $p < .01$.

이었다. 측정 가능한 마음의식의 점수 범위가 .00~1.00임을 고려했을 때,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특정 속성에 치우친 마음의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의 평균점수는 각각 77.27점($SD = 14.88$), 112.79점($SD = 11.97$)이었는데, 각 변인들의 측정 가능한 점수범위를 참고했을 때,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중간 수준보다 낮은 편이며, 비교적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평균 점수는 189.19점($SD = 31.48$)이었는데, 측정 가능한 점수범위를 고려했을 때,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 마음의식은 부정적 마음의식($r = -.37$, $p < .001$), 양육스트레스($r = -.22$, $p < .05$)와는 부적 상관이, 양육행동($r = .24$,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마음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마음의식은

낮았고, 양육스트레스 역시 적었으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 마음의식은 양육스트레스($r = .44$,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양육행동($r = -.30$, $p < .01$), 정서지능($r = -.23$, $p < .01$)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부정적 마음의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지능 점수 역시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한편 중립적 마음의식은 어떠한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 행동,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모형 분석

1)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모델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X^2 = 9.456$ ($p = .305$), $X^2/df = 1.182$ 로 유의 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Table 2〉 Model fit indices

(N = 107)

| X^2 | df | p | X^2/df | TLI | CFI | RMSEA |
|-------|------|------|----------|------|------|-------|
| 9.456 | 8 | .305 | 1.182 | .964 | .981 | .041 |

합치된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고, TLI = .964, CFI = .981, RMSEA = .041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2).

2) 연구모형 모수치 추정결과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은 Table 3, Figure 2와 같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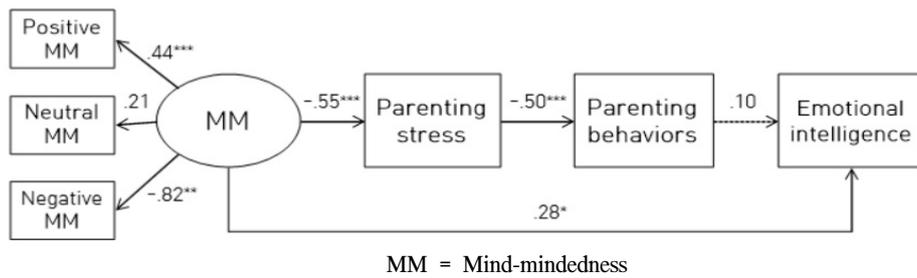
음의식은 유아의 정서지능($\beta = .29,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마음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양육스트레스($\beta = -.5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다시 양육행동($\beta = -.50,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beta = .10, ns$)간의 경로계수는

<Table 3> Path estimates of variables

(N = 107)

| Path of variables | B | β | S.E. | C.R. |
|----------------------------------------------|---------|---------|-------|----------|
| Mind-mindedness → Emotional intelligence | 146.46 | .29 | 68.07 | 2.15* |
| Mind-mindedness → Parenting stress | -132.86 | -.55 | 39.87 | -3.33*** |
| Parenting stress → Parenting behaviors | -.36 | -.50 | .06 | -5.90*** |
| Parenting behaviors → Emotional intelligence | .28 | .10 | .29 | .96 |

* $p < .05$. *** $p < .001$.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emotional intelligence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paths for the model

(N = 107)

| Path | Direct effects | Indirect effects | Total effects |
|----------------------------------------------|------------------|------------------|---------------|
| Mind-mindedness → Emotional intelligence | .28 [†] | .03 | .31* |
| Mind-mindedness → Parenting stress | -.55* | - | -.55* |
| Mind-mindedness → Parenting behaviors | - | .27* | .27* |
| Parenting stress → Parenting behaviors | -.50* | - | -.50* |
| Parenting behaviors → Emotional intelligence | .10 | - | .10 |

[†] $p < .10$. * $p < .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양육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모형에서 설정한 양육행동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매개효과를 하는지는 살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test를 실시한 결과, $\beta = .271(p < .05)$ 로 스트레스의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마음의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환경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환경으로서의 어머니의 마음의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마음의식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유아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상호작용을 시도하며(Meins, 1997; Meins & Fernyhough, 1999),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로 하여금 자신 및 타인의 마음과 정서를 다루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 및 타

인의 마음과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Laranjo, Bernier, Meins와 Carlson(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유아의 문제 행동 수준을 떨어트린다는 Meins, Centifanti, Fernyhough와 Fishburn(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할 수 있다. Meins 등(2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마음의식은 저소득 가정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을 떨어트리는 완충 역할을 하였다. 유아의 정서지능이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고려해볼 때,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표출하거나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 즉 정서지능이 낮은 유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Meins 등(2013)은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유아발달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저소득 가정 집단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이유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의식 외에도 유아의 성공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정서지능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온 것은 그만큼 정서지능에 대한 마음의식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검증해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계층에서 표집이 이루어진 후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에는 어머니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로 이를 고려하여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마음의식을 하위속성으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각각 마음의식의 빈도를 확인했을 때, 긍정적 마음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중립적 마음의식이나 부정적 마음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마음의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긍정적 마음의식과 낮은 수준의 중립적, 부정적 마음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긍정적 마음의식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정서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마음의식의 하위속성이 한 개인에게 동시에 높게 나타나거나 낮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들 하위속성의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을 시도해본다면 마음의식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효했으나, 양육행동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았다. 먼저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은 유아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어머니의 수용성에 기초한다는 Fonagy, Steele, Moran, Steele와 Higgitt (199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의식을 가진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느끼며, 유아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행동 역시 적다고 보고한 McMahan과 Meins(2012)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cMahan과 Meins(2012)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반

응하는 행동은 양육스트레스를 통하지 않고 어머니의 긍정적 마음의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머니의 마음의식과 양육행동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측정변인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McMahan과 Meins(2012)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행동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정서적 가용성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보다 일반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유아를 대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적 교류를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어머니의 의식만으로도 유아를 대하는 양육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양육환경이 유아의 발달 및 성공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요인임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양육 실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나 프로그램 마련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마음의식의 중요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의식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유아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상호작용을 유발함으로써 양육행동과는 별개로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를 참고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지능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는

데, 상관분석 결과가 다양한 변인의 경로를 고려한 구조방정식의 경로계수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양육행동이 정서지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변인 간의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총 16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교사 1인당 최대 10명 유아의 정서지능을 평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측정개념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나 극단적인 답변을 취하는 성향 등의 개인적인 특성이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방법이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떨어트렸을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접근을 취함으로써 이들 변인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마음의식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에서 대상표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어느 정도 편향되어 있어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타 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마음의식이라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긍정적 마음의식, 중립적 마음의식, 부정적 마음의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전반적인 마음의식 수준이 양육

관련 변인 및 유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 볼 수 있었지만, 마음의식의 하위 속성별 상대적 영향력은 살펴 볼 수가 없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하위속성별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이를 통해 어머니의 마음의식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구체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유아와의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부모평가나 유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능력을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보고식 평가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유아의 정서지능을 평가하는데 따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0b). *The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insworth, M. D. S., Bell, S. M., & Stayton, D. J. (1971)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situation behavior of one-year-olds. In H. R. Schaffer (Ed.), *The origins of human social relations* (pp. 17-58). Londo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 Alegre, A. (2011).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 emotional intelligence: What do we know?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9(1), 56-62.
- Arnott, B., & Meins, E. (2008). Continuity in mind-mindedness from pregnancy to the first year of lif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1(4), 647-654.
-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Vol 5* (pp. 243-267).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mers, I., Bernier, A., Tarabulsy, G., & Provost, M. (2010a).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as antecedents of maternal mind-mindednes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1(1), 94-112.
- Demers, I., Bernier, A., Tarabulsy, G., & Provost, M. (2010b). Mind-mindedness in adult and adolescent mothers: Relations to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6), 529-537.
- Dunn, J., & Brown, J. (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137.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 Ereky-Stevens, K. (2008).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sensitivity to their infants' internal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mind and emo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5), 527-543.
- Fonagy, P., Steele, H., Moran, G., Steele, M., & Higgitt, A. (1991).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 mental states: The reflective self in parent and child and its significance for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2(3), 201-218.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9(4), 679-700.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Gottman, J., Declairs, J., & Goleman, D.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Simon & Schuster.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161-177.
- Jung, M. S., Park, Y. S., Lee, H. J., & Kim, K. M. (2010). *Cognitive development: The learning brain*. Seoul: Sigmappress.
- Kernberg, O. (197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ew York: Jason Aronson.
- Kim, K. H. (1998).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aranjo, J., Bernier, A., Meins, E., & Carlson, S. M. (2010). Early manifestations of children's theory of mind: The roles of maternal mind-mindedness and infant security of attachment. *Infancy*, 15(3), 300-323.
- Lee, J. Y. (2011).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 depressed mothers and their infants in play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i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Liau, A. K., Liau, A. W., Teoh, G. B. S., & Liau, M. T. L. (2003). The case for emotional literacy: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problem behaviors in Malays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2*(1), 51-66.
- Lok, S. M., & McMahon, C. A. (2006). Mother's thoughts about their children: Links between mind-mindedness and emotional availabilit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4*(3), 477-488.
- McMahon, C. A., & Meins, E. (2012). Mind-mindedness, parenting stress, and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s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45-252.
- Meins, E. (1997). *Security of attachment and the social development of cognition*. Hove, UK: Psychology Press.
- Meins, E., Centifanti, L. C. M., Fernyhough, C., & Fishburn, S. (2013). Maternal mind-mindedness and children's behavioral difficulties: Mitigating the impact of low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4), 543-553.
- Meins, E., & Fernyhough, C. (1999). Linguistic acquisitional style and mentalising development: The role of maternal mind-mindedness. *Cognitive Development, 14*, 363-380.
- Meins, E., & Fernyhough, C. (2010). *Mind-mindedness coding manual, Version 2.0*. Unpublished manuscript. Durham University, Durham, UK.
- Meins, E., Fernyhough, C., Fradley, E., & Tuckey, M. (2001). Rethinking maternal sensitivity: Mothers' comment on infants' mental processes predict security of attachment at 12 month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637-648.
- Meins, E., Fernyhough, C., Russell, J., & Clark-Carter, D. (1998). Security of attachment as a predictor of symbolic and mentalising 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7*, 1-24.
- Meins, E., Fernyhough, C., Wainwright, R., Clark-Carter, D., Gupta M. D., & Fradley, E. (2003). Pathway to understanding mind: Construct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maternal mind-mindedness. *Child Development, 74*(4), 1194-1211.
- Meins, E., Fernyhough, C., Wainwright, R., Gupta, M. D., Fradley, E., & Tuckey, M. (2002). Maternal mind-mindedness and attachment security as predictors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6), 1715-1726.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Paivio, A. (1986). *Mental represent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Y. A., Choi, Y. H., & Park, I. J.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5*(2), 161-182.

- Pears, K. C., & Moses, L. J. (2003). Demographics, parenting, and theory of mind in preschool children. *Social Development, 12*(1), 1-19.
- Salovey, P., Mayer, J. D., & Caruso, D. R. (2000). Competing mod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R. Sternberg(Ed.),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pp. 396-4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ovey, P., Stroud, L. R., Woolery, A., & Epel, E. S. (1999).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reactivity, and health: Further explorations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sychology and Health, 17*(5), 611-627.
- Sillick, T. J., & Schutte. N. S. (2006).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mediate between perceived early parental love and adult happiness. *E-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Emotional Intelligence, 2*(2), 38-48.
- Walker, T. M., Wheatcroft, R., & Camic, P. M. (2012). Mind-mindedness in parents of pre-schoolers: A comparison between clinical and community sample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7*(3), 318-335.
- Yu, W. Y. (1998). The causal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related variables effects on infant's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Kwangju, Korea.

Received February 27, 2014

Revision received May 19, 2014

Accepted June 16, 2014